

# 광주시·문화전당, 내년 프린지페스티벌 공동 개최

### 시·전당 협약 체결 ... 재정 지원·사무국 운영 홍보 협력 주제·콘셉트·행사 일정 등 심의 자문위원 11명 위촉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인 'ACC-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 측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ACC-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 공동 추진 협약을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여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격주 토요일 전당 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프린지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재정 지원, 사무국 운영, 홍보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하게 된다. 특히 격주로 하는 프린지 행사 이외에 내년 4~5월 중에 ACC-광주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은 일주일 일정으로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다.

국내 주요 페스티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예술감독들의 협력과 자문을 받아 페스티벌 콘셉트, 행사기획, 프로그램 내용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대인 아시장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을 연결함으로써 광장과 거리의 문화와 더불어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 뒤 내년 프린지페스티벌의 주제, 콘셉트, 행사일정, 프로그램 기획, 출연자 선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할 자문위원으로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등 11명을 위촉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광주프린지페

스티벌에는 합창단과 관악 경연, 중국문화의 날 축하행사 등 8개 페스티벌이 다채롭게 꾸며진다.

우리국악 한마당, k-pop광주아이돌을 찾아라 경연, 상추튀김 트로트건강가요제, 제1회 빛고를 우쿨렐레페스티벌, 인형극 축제 아트드림인파크 등도 관객과 함께한다.

특히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 자매결연 20년을 축하하는 중국 문화의 날 행사는 전통가면술인 변검, 중국전통 기예(서커

스) 등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매일 둘째와 넷째 토요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광주문화 절정체험'을 슬로건으로 지난 5월부터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다.

관람객이 늘면서 홍보부스에 대한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에는 미래형 친환경 경자차 수조차·전기차 홍보, 대구컨벤션뷰로 홍보 등이 프린지공간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ACC-프린지 페스티벌 공동개최 협약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진만 갈대숲 걷고 황포돛배 타고 영산강 답사

### “남도로 가을 여행 오세요”

#### 전남도, 여행주간 맞아 67개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정부가 설정한 여행주간에 가을 관광을 위한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 여행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떠나요, 단 14일간만 열리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가을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전남도는 대표 프로그램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 여행'과 시·군별 특색을 반영한 67개 프로그램을 운영, 여행 주간 동안 국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119개 지역 관광업체도 할인에 참여한다.

'남도 강길, 바다길, 철길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여행주간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16선 가운데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강진만 갈대숲, 영산강 황포돛배, 무안 몽탄역, 영암 구립전통마을 등 남도의 숨은 관광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특화상품이다.

영산강 옛길 생태답사 29일과 11월 5일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선착순 160명을 모집해 영산강 유역 답사와 국악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새로운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강진만 갈대숲에서는 '노래와 풍경이 있는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이 27~30일 펼쳐지고, 강진만 생태숲 탐방로에서는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가 28~30일 열린다.

무안 몽탄역에서는 호남선 103년 역사를 보여주는 몽탄역의 역사와 주변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호남선 철도문화축제'가 29~30일 개최되며, 무안 몽탄행 통학 열차 운영과 통학열차 뮤지컬 공연, 각설이 품바 버스킹, 간이역 시노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밖에도 남도의 한옥마을에서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국화향 그윽한 전통한옥, 휴(休) 여행', 수도권 관광객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통한옥 1박2일, 남도 휴(休) 여행', 광주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위한 '남도버스타어, 가을날의 사색(四色)'을 운영한다.

시·군에서는 순천만 갈대축제, 나주 마한문화축제, 구례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 보성 벌교 꼬막축제,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영암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 함평 대한민국국학대전,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개최되는 등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된다.

여행주간 프로그램, 할인 관광업소 등 자세한 정보는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또는 여행주간 홈페이지(fall.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고흥서 소나무 12그루 재선충병 감염 확인

### 전남도 감염확산 방지 주력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1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 19일 확인됐다. 이 지역은 지난 3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보성 벌교읍과 14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 고흥군,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고흥군 남양면사무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방제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재선충병 피해조사단은 12월 말까지 전량 제거하고, 발생지역 주변으로 예방 나무를 심어 줄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발생지역 주변을 수시 예찰할 방침이다.

또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산불 임차열기를 활용에 월 2회 이상 정밀예찰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라남도도는 지난 1997년 구례 화엄사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전국 최초로 박멸하는데 성공했으며, 2001년부터 발생한 목포·신안·영암도 완전 방제했다. 재선충은 지난 2010년 여수·순천·광양에서 발생했으며,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감염 소나무는 203그루로 지난해 10월(1558그루)보다 크게 줄었다. /윤현석기자chadol@

##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탄력

### 광주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비수도권 최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회를 열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지난 8월 심의때는 교통영향 분석, 밀도와 아파트 높이의 적정성, 학생 수용과 관련한 학교 재배치 등의 이유로 유보됐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현재 45.4%인 용적률을 다소 낮출 것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보장(49%), 주차장 확대 등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9년여 만에 가시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뉴스테이 사업은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맡고 건물 운영과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THL)가 맡는다.

토지보상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간 견해차가 커 불발된 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올 초 새 사업자로 전문 시행사인 (주)스트래튼 알이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06년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 11만1430㎡에 대한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 이후 시작됐으나 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하다가 정부와 광주시가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美 “北 무수단 추정 미사일 발사 ... 또 실패”

### “유엔안보리 결의 위배” 비판

미국 전락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 전락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20일 오전 7시)께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했다면서 해당 미사일은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북한 미사일이 북미지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락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전락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사령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대 안보유지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캐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명백히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로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도발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응 결의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